

펜젠스의 해적들, 또는 의무의 노예

영국 (그리고 유럽 대륙) 연극 전통을 따라, 길버트와 설리번은 종종 자신들의 오페라에 부제목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들의 열성 팬이라면 *선원을 사랑한 소녀*, *귀족과 요정*, *E/T/푸 마을*이라는 제목이 각각 *H.M.S. 피너포어*, *이올란세*, *미카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펜젠스의 해적들*에서는 주인공 프레더릭이 자주 자신이 “의무의 노예”라고 강조합니다.

제1막

영국 해안 근처, 21세 된 청년 프레더릭은 해적단에서의 견습 기간이 끝났음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해적단의 하녀 루스는 그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프레더릭이 아기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조종사(pilot)의 견습생으로 맡기려 했지만, 루스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 해적(pirates)들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해적 견습생 신분에서 벗어난 프레더릭은 해적의 삶이 악하다고 생각하며, 동료들도 이제는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 자신들이 "고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바람에 실력 없는 해적이 되었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하지만 해적 왕은, 오히려 해적으로 사는 것이 겉보기엔 “정상적인 삶”보다 더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프레더릭은 해적선을 떠날 준비를 하고, 루스는 자신을 데려가 결혼해 달라며 간청합니다. 프레더릭은 망설이지만 결국 승낙하고 둘은 함께 떠납니다. 해변에 도착한 이들은 우연히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프레더릭은 이들을 보자마자 루스가 자신에게 자신이 아름답다고 속였다고 분노하며 비난합니다.

프레더릭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해적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모두 그를 거절하고, 오직 메이블만이 그에게 연민을 보이며 손을 내밉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지죠. 그 순간, 해적들이 다시 나타나 해변을 습격하고, 여성들을 납치해 강제로 결혼하려 합니다.

이때 메이블의 아버지인 소장(소장)은 무대에 등장하여, 딸들이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당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도 고아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해적들 역시 고아 출신이라 그의 말에 동정심을 느끼고, 소장과 여성들을 풀어줍니다.

인터미션

제2막

소장의 저택에서,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겼다고 슬퍼합니다. 딸들은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려 합니다. 이때 경찰서장이 나타나, 프레더릭의 도움으로 해적들을 체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프레더릭은 이 기회를 통해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적 왕과 루스가 다시 나타나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프레더릭은 실제로는 만 21세가 아니며, 생일이 2월 29일인 윤년 출생자이기 때문에 계산상 다섯 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21번째 생일"이 되어야 계약이 끝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해적 왕은 프레더릭이 '의무감'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기에, 결국 다시 해적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레더릭은 충직하게 경찰의 계획을 해적 왕에게 고백합니다.

떠나기 전, 프레더릭은 메이블을 만나 이 사실을 설명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기다리기로 약속합니다. 메이블은 경찰에게 그들이 해적들과 홀로 맞서 싸워야 할 거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적들도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날 밤, 해적들은 소장의 저택을 기습합니다. 경찰이 급히 방어에 나서지만 쉽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경찰서장은 해적들에게,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루스가 해적들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 사실 이들은 모두 귀족들이었던 것이죠.

여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해적들은 소장과 여성들을 풀어주고, 소장은 기꺼이 딸들을 이
고귀한 신랑감들에게 시집보내기로 합니다. 모두가 다가오는 결혼을 기쁘게 축하하며
막이 내립니다.

출처: 캔자스시티 리릭 오페라